



출시 후 10회 이상 외산제품 윈백 논리적 망분리 클라우드 PC 솔루션

VD-i는 출시 후 3년간 외산 시트릭스, VM웨어 제품을 10회 윈백했으며
금융, 기업, 공공기관 누적 사용자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.
꾸준한 기술개발로 2026년까지 외산제품을 50% 이상 대체해 나가겠습니다.

1

해킹 원천 차단 망분리 : 인터넷 자료전송 유출 원칙적으로 차단

-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악성코드유입 및 데이터 위변조 및 유출 원천 차단
- 해커에 의한 시스템 무력화 · 운영중단 위험 예방

2

엔드포인트 보안 끝판왕 클라우드 PC : 데이터 중앙 집중적 저장관리

- 업무화면만 전송되므로 로컬PC 단말로 파일이 내려오지않아
PC를 통한 정보유출 원천 차단
- USB·외장하드를 통한 파일이동, 근거리통신(블루투스·적외선RFID·테더링 등)을 이용한
데이터 전송, 멀티OS부팅을 통한 해킹, 노트북 디바이스 도난위험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안전

주요 고객사

*해당사업은 2026년
완료 프로젝트임

2023



LG전자

PC 가상화 인프라
*0,000유저 규모 구축

*1, 2, 3차 사업 수행

2021, 2022, 2023



하나은행

인터넷 접속 망분리
15,000유저 규모 구축

2021



LG디스플레이

내부 PC 가상화
*1,000유저 규모 구축

2022

meritz

가상 인터넷 시스템
1,800유저 규모 구축

*1, 2차 사업 수행

2023, 2024

KIAT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
가상화 기반 데이터 정보보안 시스템
전직원 규모 구축



외산 대비 30% 성능향상

외산대비 VD 접속시간
30%이상 단축
AD, 네트워크, 소프트웨어,
하드웨어(서버, 스토리지) 최적화



외산 대비 30% 가격경쟁력

상용 라이선스 제약 탈피
외산대비 30% 이상
비용 경쟁력 확보
안정적인 라이선스 비용정책



외산대비 3배 이상 기술지원 대응력

200여 명 VDI 전문가 보유
인프라구축에서 유지관리까지
단일 벤더에서 일괄지원
신속한 업무지원 가능

VD-i는 시트릭스, VM웨어 외산제품을 10회 이상 원백해왔습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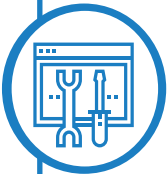
28년 축적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력 탑재

- 28년간 축적한 엔드포인트 보안솔루션 기술력을 통한 에이전트 충돌 최소화
- 프린터, 웹캠, 생체인증(지문/홍채) 디바이스와 가상화PC 간 정합성 확보 (외산대비 역량우수)



라이선스 부담 최소화

- 오픈스택 기반으로 구성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하여 돌발적 라이선스 인상없음
- 향후 라이선스 정책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담 최소화
(V모사 인수합병 이후 영구라이선스 판매 종료 및 연간라이선스 정책 변경 통보)



고가용성 설비구축

- 고가의 서버가 아닌 경량화 서버로 구성
- 다수의 경량서버로 장애 발생 시 다른 가상화 서버에서 서비스를 유지하여 연속성 보장



망연계 대체 정보보호 검역소 내재화 로드맵

- 가상화 환경에서의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조치 구축 필요성
- 로컬 PC와 가상화PC 사이 정보유출차단 및 악성코드 통제 검역기능